조선대 법인 정상화 막판 진통

내달 마무리 방침 속 사학분쟁위 매주 소집
구 재단 측 회의 불참 등 시간끌기 나선 듯

조선대학교의 법인 정상화 문제를 논의 중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귀호)가 이달 들어 거의 매주 소집되는 등 정이사 선임을 놓고 잰걸음을 걷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조선대를 포함한 21개 대학에 새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함에 따라 정이사 선임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22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조선대 등 대학법인의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이날 조선대와 구 재단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 박철웅 전 총장 측인 구 재단측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구 재단측은 지난 8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 소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구 재단측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과 사학분쟁조정위의 위원 교체 등을 노린 시간끌기로 풀이된다.

사학분쟁조정위의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이번 달 1일 열렸다. 그러나 심의가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회의를 여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것. 5월에는 이날 회의를 포함해 정기회의 날인 1일, 15일 등 세 차례나 열렸다.

조선대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가 구 재단 측 대표와 조선대 측 대표를 따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던 8일 모임까지 합친다면 매주 회의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조선대 측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 관계자를 불러 브리핑을 하진 않지만 회의가 자주 열리는 등 최근 교과부의 보고내용과 같이 6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기다리는 대학의 구 재단 측 인사들이 최근 단체 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각 대학의 현 운영 주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상화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5개 교육·학부모 단체로 이뤄진 '임시이사 파견대학 부정·비리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정치인과 특정 이념성향의 시민운동가들이 사학을 접수하고 있다"며 "조선대 등 비리혐의가 있는 임시이사 체제 대학 8곳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대 등 21개 대학의 종전 이사 및 설립자들의 모임인 '사학 설립자 비상대책 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사학분쟁조정위가 사립학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사학을 다시 관치화하려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5명의 위원들은 자진 사퇴해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진 대비 훈련
27일 일제 실시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지진(해일) 대비 훈련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27일 오후 2시 충북 보은군 일대에 강진(리히터 규모 6.8)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 재난경보를 발령해 전국 읍 단위 이상 지역에서 일제히 지진(해일)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6일부터 사흘간 38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이다.

특히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고성 등 동해.남해안 지역 23개 시·군에서는 대피훈련이 실시되며, 전국의 1만9천여개 초·중·고교 학생 890만명도 지진·화재 대피훈련에 참여하게 된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빗방울 교향곡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

5월 23일 (음 4월 19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흐려져 오후부터 비	17~24℃
목 포	흐려져 오후부터 비	17~22℃
여 수	흐려져 오후부터 비	16~20℃
완 도	흐려져 오후부터 비	16~21℃
구 례	흐려져 오후부터 비	15~24℃
해 남	흐려져 오후부터 비	16~23℃
장 흥	흐려져 오후부터 비	15~22℃
고 흥	흐려져 오후부터 비	15~22℃
순 천	흐려져 오후부터 비	14~24℃
영 광	흐려져 오후부터 비	15~22℃
진 도	흐려져 오후부터 비	17~22℃
전 주	흐려짐	17~26℃
남 원	흐려져 오후부터 비	14~24℃
흑산도	흐려져 오후부터 비	12~19℃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 04:02 15:44 썰물 〈 09:18 21:03
여 수 밀물 〈 10:30 23:12 썰물 〈 04:47 16:26

▲해뜸 05:23 ▲해짐 19:35 ▲달뜸 22:36 ▲달짐 07: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 씨						
최저/최고	18/25	15/27	15/28	16/28	17/25	14/24

오늘·내일 더위 식히는 비

23일 광주·전남지역은 점차 흐려져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주말인 24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지역은 남해 먼바다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올 전망이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5~20㎜.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상되며,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애완견 복제 성공' 황우석 박사 그동안 뭐했나

경기 용인서 지난해부터 본격 실험
최근 동물복제 바이오기업 설립도

황우석〈사진〉 전 서울대 교수가 미국 연구진이 10년 전부터 시도하다 실패한 개 복제 프로젝트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최근 '에이치바이온'이라는 동물복제 전문 바이오기업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또한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를 다시 시도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황 박사, 그동안 뭐했나=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는 자신을 따르던 20여명의 서울대 연구원과 함께 2006년 7월 서울 구로동의 한 건물에 간이 실험실을 꾸렸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는 동물실험을 할 수가 없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친척의 창고를 실험실로 개조했다. 이후 먼지 때문에 연구가 어렵게 되자 그 친척은 인근 지역에 실험용 건물을 신축해줬고 황 박사팀은 2007년 1월 초 이곳에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했다.

◇'미시 프로젝트' 어떻게 이뤄졌나=미시프로젝트는 미국 아폴로그룹의 회장인 존 스컬링 박사가 1998년 애완견인 '미시'를 복제해 달라며 230만 달러를 텍사스 A&M 대학에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텍사스 A&M 대학 연구에는 한국인 과학자인 신태영 박사가 복제실험 담당자로 합류했지만 복제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신 박사는 황 박사에게 개 복제 연구를 권유했고, 황 박사가 2005년에 세계 첫 복제개인 '스너피'를 탄생시켰다. 이런 인연 때문에 존 스컬링 박사가 세운 미국의 바이오아트사는 지난해 7월 미씨 복제 프로젝트를 황 박사에게 제안했다.

◇'논문' 없는 연구성과…윤리문제 없나=이번 연구성과는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수암연구팀은 이번 미씨 성공 발표가 보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논문투고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성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데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문이다. /연합뉴스

"내 작품 어때" 광주 서강정보대학은 22일 교내 문화관에서 광주와 전남·북 25개 전문계 고교 300여명의 학생들을 초청, '제5회 서강정보대·전문계 고교 경진대회 및 공동작품전'을 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출품작을 시연해 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촛불집회 탄압 말라"
청소년들 인권위 진정

청소년 다함께 등 청소년단체 8개와 중·고교생 94명은 22일 경찰과 교육당국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탄압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청소년들은 진정서에서 "경찰과 교육당국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방식으로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칙인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전주 우석고에서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 경찰이 조사한 사실 ▲ 문화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일선 고교의 협박 ▲ 교사들의 문화제 현장 방문과 집회 방해 등 사례 16개를 진정서에 기재했다.

청소년들은 이 같은 인권 침해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정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간섭을 받지 않고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긴급 구제신청도 냈다. /연합뉴스

의·치의학 입문시험 8월 23일
광주 등 전국 6곳서 실시

6월 3~13일 원서접수

2009학년도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가 8월23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6개 지역(7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시험 장소는 접수 후에 발표한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는 22일 MEET·DEET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부 과목 문항 수를 늘리는 내용의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MEET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DEET에 응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입학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 전남대 63명 ▲조선대 125명 등 전국 27개 학교 1천641명이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전남대 70명 ▲조선대 80명 등 8개 학교 530명이다.

2009학년도 입문검사 내용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나 자연과학추론 Ⅰ의 문항수가 3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자연과학추론 Ⅱ는 30문항에서 45문항으로 각각 늘어나고 시험 시간은 자연과학추론 Ⅰ이 80분에서 100분으로, 자연과학추론 Ⅱ는 9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난다.

원서 접수기간은 6월3~13일이며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www.mdeet.org)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